

무주군, 주민들에 마스크 공급 “농가 일손부족 해소 기여할 것”

마스크 6만여장 공급·16일부터 면 마스크 인당 5매씩 추가 지원

코로나19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무주군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이목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반 면 마스크와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6만여 장을 공급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주민들에게 일반 면 마스크 15만 장을 추가로 지원(인당 5매)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12일부터는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환) 주관으로 마스크 포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작업장에는 아침부터 아이코리아와 새마을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대한적십자회, 여성자원봉사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무주군 관내 9개 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함께 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회원들은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에 군민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와 배포에 군이 미리 대응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주민들



코로나19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무주군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이목을 끌고 있다.

손에 하루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일손이라도 보태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마스크 확보를 위해 지난 7일 황인홍 군수가 직접 대전 공장을 방문해 납품을 확정지었으며,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해 포장용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이

다. 무주군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어렵다보니 완제품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라며 “코로나19 예방도, 극복도 군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현철 진안군수 예비후보,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통해”



진안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철 예비후보는 12일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해 농가 일손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진안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번기에는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인력 증개뿐 아니라 고용정보제공, 취

업알선연계 등 농촌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인력지원은 축산, 과수 및 시설채소 등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그 우선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철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전북도의원 당시 양성빈(장수)의원과 함께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활기업 마이크린이 12일 보듬청소년지원센터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 장애인들 위해 소중하게 써주길”

자활기업 마이크린, 보듬청소년지원센터에 후원금 100만원 기탁

자활기업 마이크린(대표 구필근)이 12일 보듬청소년지원센터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보듬청소년지원센터는 진안군 장애 아동 부모 10여명이 주축이 되어 발달 장애 및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교육사업을 하는 곳으로 2019년 12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구필근 대표는 “현행법 상 보듬청소년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못해 정부지원이 없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활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의 뜻을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쓰여질 예정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도 관내 곳곳에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지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성장한 마이크린은 청소, 소독, 방역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고용과 재정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관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장수·산서·번암·장계 등 4개 시장 전체 91개 점포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설시장 입주 상인을 돕기 위해 시장 사용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입대로 감면 대상은 장수, 산서, 번암, 장계 등 4개 시장이며 전체 91개 점포가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기간중 감면

금액은 650여만원이다.

현재 군은 4개시장 소독을 장남 전과 당일 진행 중이며, 손소독제를 비치해 이용객들과 상인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입대로 감면하게 됐다”며 “군민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내 상인들을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 및 사용,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특상품구매, 지역식당 이용하기 운동 등에 동참해 어려움을 극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올해 나무 55만 그루 심는다

무주군은 올해 20여억 원을 들여 나무 55만 그루를 심는다고 밝혔다.

나무심기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군으로서의 명성을 잇고 숲을 가꾸 지역의 자산으로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편백과 소나무 등 미세먼저 저감 조림 31ha, 느릅과 햇개, 자작, 상수리 등 경제림 230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 총 292ha 규모

의 조림사업을 진행한다.

2019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공모에서 선정된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도 무풍면 철묵리 승지마을 1ha 규모에 경관조성 수목을 심을 예정으로, 무주군은 이밖에 1억 9천 8백만 원을 투입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와 산림조성팀 이상일 팀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공적 자산을 확보하는 기반”이라며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수종을 심어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마이산 주차장 무료 개방

진안군은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마이산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차차표판매와 탐방객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마이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실마다 살균 거품 비누를 비치하고 있다.

특히 안마이봉 개방과 맞물려 무료개방이 시행되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부착을 늘리고 도립공원을 비롯한 야외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당부하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료개방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탐방객들도 공원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개인 예방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육군 제7733부대 1대대 진안 곳곳서 방역활동 펼쳐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육군 제7733부대 1대대(대대장 김기춘)가 지난 9일부터 관내 곳곳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장병들은 관내 11개 읍·면 상가 및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진안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기춘 대대장은 “군 장병들의 노력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작은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관내 곳곳을 빈틈없이 소독해 주시는 군부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